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 | | | | | | | | | |
|----|--|------|--|--|--|--|---|--|--|
| 성명 | | 수험번호 | | | | | 3 | | |
|----|--|------|--|--|--|--|---|--|--|

1. (가), (나) 윤리학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윤리학의 본질은 도덕적 행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모든 행위자들에게 타당한 도덕 규칙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나) 윤리학의 본질은 도덕 언어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을 검토하여 도덕적 논의에서 등장하는 용어의 의미와 논리적 구조의 타당성을 밝히는 것이다.

- ① (가)는 도덕 문제를 가치중립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가)는 도덕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 ③ (나)는 도덕적 관습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술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④ (나)는 학제적 접근을 통해 현실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가), (나)는 보편적 도덕 법칙의 정립을 본질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2.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윤리의 토대에 대한 우리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실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세대의 권리는 우리에게 응답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을 수용해야 한다. 이런 의무는 우리에게 그들에 대한 정언적 책임을 요청한다. 또한 우리는 목적 자체로 인정하는 영역을 인간을 넘어서까지 확장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염려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善)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져야 하는 당위로 연결되는가?
- ② 인간에 대한 책임은 다른 존재에 대한 책임과 양립 불가능한가?
- ③ 미리 사유된 위험으로부터 새로운 윤리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가?
- ④ 현세대는 책임의 대상과 범위를 미래 세대까지 확장해야 하는가?
- ⑤ 인간은 인류의 지속적인 존속을 무조건적 명령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서는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공공적 정의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래도록 끈질기게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 특히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의 침해는 굴종 아니면 반항을 일으킵니다.



- ① 시민 불복종은 성공에 대한 합당한 전망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
- ②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 ③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시민들에 의해 발생한다.
- ④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침해될 때 폭력적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다.
- ⑤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갑, 을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종교적 인간에게 세계는 초자연적 가치로 충만해 있다. 신의 현존에 의해서 직접 신들과 교류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신들은 세계와 우주적 현상의 구조 그 자체 안에서 다양한 성(聖)의 양태를 현현(顯現)한다.
 을: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것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자연 현상일 뿐이다. 물리적 세계 너머에는 아무 것도 없으며 초자연적 지성도 없다. 자연은 물리학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인간의 윤리적 행위 역시 자연 선택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 ① 갑: 인간은 종교적 존재로서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 ② 갑: 성(聖)과 속(俗)은 단절되지 않으며 공존할 수 있다.
- ③ 을: 초자연적 지성의 전제 없이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 ④ 을: 인간의 윤리적 행위의 원인은 과학으로 설명 가능하다.
- ⑤ 갑, 을: 초월적 신은 자연에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드러낸다.

5.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사람들에게는 모두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거리낌 없이 하는 일 때까지 확충해서 적용하는 것이 인(仁)이다.

| | | | | |
|--|-----|-----|--|--|
| | | | | |
| | | (A) | | |
| | (B) | | | |
| | | | | |

(나) [가로 열쇠]
 (A): 촌수가 가까운 일가.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일컫음.
 (B): 손실 이전의 상태를 회복함. 예) 피해를 원상○○하다.

[세로 열쇠]
 (A): 개념

- ① 신의(信義)를 바탕으로 서로 권면하는 관계이다.
- ② 혼인을 통해 맺어진 상호보완적이며 대등한 관계이다.
- ③ 혈연을 바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호혜적인 관계이다.
- ④ 세대와 향렬(行列)에 따라 서로 예절을 지키는 관계이다.
- 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우애를 실천하는 동기간(同氣間)이다.

6.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고대 동양 사상가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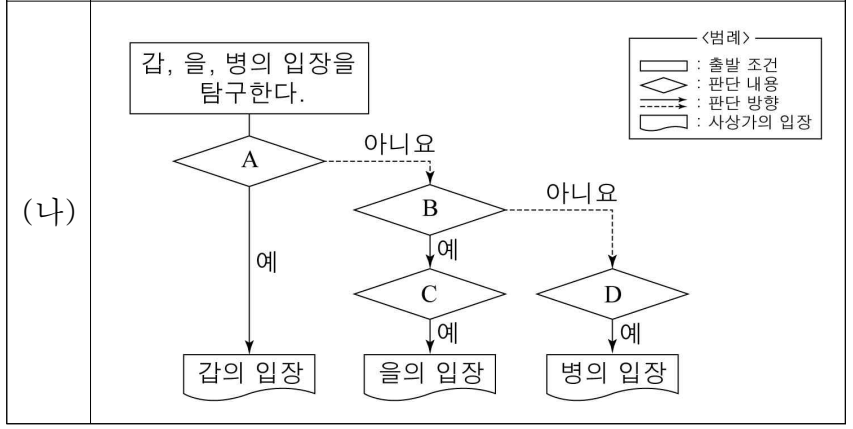
갑: 영혼 자체만이 사물 그 자체를 볼 수 있다.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떠나서 육신과 관계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영혼이 육체적 감각이나 욕망을 갖지 않고 오직 참된 진리만을 갈망할 때 사유(思惟)는 최상의 것이 된다.
 을: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다. 사물이 가득 차고 텅빔, 멀고 가까움이라는 흐름 속에 있는 것처럼 진인(眞人)은 삶과 죽음 또한 하나의 흐름 속에 있음을 깨닫는다.

<보 기>
 ㄱ. 갑: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얻는 계기이다.
 ㄴ. 을: 죽음은 필연적인 과정이며 좋아하거나 싫어할 대상이 아니다.
 ㄷ. 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별적 지혜가 필요하다.
 ㄹ. 갑, 을: 죽음은 자연의 섭리로서 애도(哀悼)하는 것이 마땅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분배 정의는 어떤 의미에서든 각자의 가치에 따라야 실현 가능하다. 동등한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은 몫을 받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을: 취득과 양도의 원리는 독립적인 근거를 갖는 정의의 원리이다. 이것에 의해 어떤 사람이 소유 권리를 부여 받았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병: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계약 당사자들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가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재화가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다는 데 합의할 것이다.



<보 기>
 ㄱ. A: 분배 정의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인가?
 ㄴ. B: 최소 국가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유일한 국가인가?
 ㄷ. C: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로 보장되는가?
 ㄹ. D: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국가 개입은 정당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는 것이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이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전쟁 개시 결정에 국민들의 동의가 꼭 필요한데, 전쟁에 따른 재앙을 각오하는 것에 매우 신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을: 모든 국가의 자결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불간섭주의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던지는 행동이 발생하고, 그 국가의 어떠한 세력도 문제 해결 능력이 없을 때는 인도주의적 개입이 필요하다.

- ① 갑: 독립 국가는 매매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 ② 갑: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 ③ 을: 전쟁에 동원되는 수단은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 ④ 을: 정의로운 전쟁이라도 평화를 회복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 ⑤ 갑, 을: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쟁은 정당화 될 수 없다.

9. 갑, 을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에 모두 바르게 대답한 것은?

갑: 태아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인격체와 동등한 생명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 또한 여성은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므로 낙태 여부는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을: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지닌다. 모든 인간 생명은 존엄하며 태아 역시 생명이 있는 인간이므로 낙태는 금지되어야 한다.

| | 질문 | 대답 | |
|---|-------------------------------|-----|-----|
| | | 갑 | 을 |
| ① | 임신부와 태아가 지닌 생명의 가치가 동등한가? | 예 | 예 |
| ② | 낙태는 인격체인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가? | 아니요 | 예 |
| ③ | 잠재적 인간인 태아는 성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는가? | 예 | 아니요 |
| ④ | 태아의 존엄성이 낙태 여부 결정의 우선적 기준인가? | 예 | 아니요 |
| ⑤ | 임신부의 낙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하는가? | 아니요 | 아니요 |

10. 갑 사상가는 긍정, 을 사상가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우리에게 도덕적 동기를 주는 것은 배려이다. 배려는 특수한 관계 속에 있으려는 우리의 열망으로, 배려를 하는 사람과 배려를 받는 사람의 상호 교감 속에서 발휘되어야 한다.
 을: 어떤 목적을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결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오직 의무 의식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보 기>
 ㄱ. 타인에 대한 공감보다 도덕 법칙의 준수가 우선인가?
 ㄴ. 자연적 감정을 윤리적인 행위의 원천으로 보아야 하는가?
 ㄷ. 모든 이에게 적용 가능한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하는가?
 ㄹ. 동정심에서 유발된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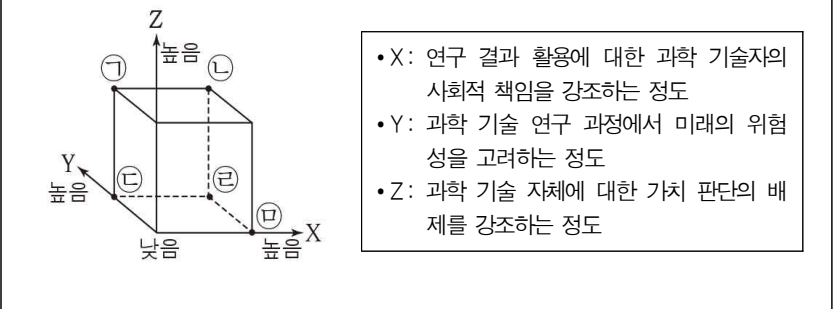
1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과거부터 차별을 받아 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은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
- ② 여건이 불리한 집단에 대한 우대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한다
- ③ 소외 계층의 이익을 보장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 ④ 사회적 가치는 개개인의 업적과 성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 ⑤ 과거의 차별에 대해 잘못이 없는 현 세대는 보상의 책임이 없다

12.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과학 기술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인 것이다. 또한 과학 기술자들은 과학 기술의 활용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우며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 과학 기술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과학 기술자들은 자신의 연구 성과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한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 간의 관계를 순전히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에 의해 확립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들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집단들 간의 관계는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 기>
 ㄱ.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다.
 ㄴ. 집단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ㄷ. 선의지의 함양만으로도 집단 간의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있다.
 ㄹ. 이성인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p>갑: 동물에 대한 잔인한 학대는 인간 자신의 의무에 반한다.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둔화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도덕성에 이로운 자연소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p> <p>을: 인간은 자신을 공격하는 동물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므로 이러한 행동은 정당방위처럼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p> <p>병: 생명 공동체가 살아남으려면 대지 윤리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대지는 토양, 식물 및 동물이라는 회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샘이다.</p> |
| (나) | |

<보 기>
 ㄱ. A: 모든 이성적 존재는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ㄴ. B: 개체의 번영보다는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이 우선이다.
 ㄷ. C: 도덕적 존중의 대상을 인간 개체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ㄹ. D: 인간이 비이성적 생명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성(性)은 가족 관계의 존속이나 사회의 안정적 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성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을: 아닙니다. 성은 서로의 인격 존중이 중요하므로 자발적 동의와 사랑에 바탕을 두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갑: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은 인격적 교감과 함께 결혼과 출산을 통한 사회 안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로의 자발적 동의와 사랑만으로 성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을: 성을 결혼과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육체적·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다면 성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① 성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추구되어야 하는가?
- ② 성은 서로의 인격적 가치 존중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가?
- ③ 성은 혼인 관계 내에서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 ④ 성은 서로 간의 자발적 동의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 ⑤ 성은 사랑이 없어도 당사자들의 합의만 있다면 정당화 가능한가?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정부의 원조 확대는 원조의 총량을 증가시켜 인류 전체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 그러나 개인도 절대 빈곤에 처한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켜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을: 정부가 국민이 굶주리도록 방치하는 상황은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는 벌어지지 않는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을 겪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여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 ① 갑: 원조는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순수한 동기로 행해져야 한다.
- ② 갑: 원조의 목적을 원조 대상국의 제도 개선으로 한정해야 한다.
- ③ 을: 원조를 통해 전 지구적 차원의 부의 재분배를 실현해야 한다.
- ④ 을: 원조 대상을 선정할 때 빈곤국의 정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⑤ 갑, 을: 원조 여부는 최대 효용의 원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자연은 인간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지만 은총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임한다. 직업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소명이며, 직업에서의 성공이 신에 의해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을: 소수가 사회의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곳에서는 노동의 소외가 발생한다. 노동자는 여분의 노동 시간을 투입하여 생산 수단의 소유자를 위해 생활 수단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 기>

ㄱ. 갑: 직업 노동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다.
 ㄴ. 갑: 직업은 원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만 수행되어야 한다.
 ㄷ. 을: 노동의 본질 실현을 위해 생산 수단의 사유를 철폐해야 한다.
 ㄹ. 갑, 을: 노동 분업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야 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동등성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사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형벌은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합니다. 종신 노역형으로도 충분한 정도의 억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 ① 갑: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형벌이다.
- ② 갑: 사형제는 보복법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③ 을: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
- ④ 을: 형벌의 유용성은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형벌은 범죄에 대한 비례관계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19.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문화적 이질성을 제거하고 통합성을 높이는 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주민들이 거주국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 등을 받아들여 기존 주류 문화의 질서에 편입되도록 해야 한다.

(나)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가 동등한 자격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사회 발전에 이롭다. 따라서 이주민들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여 거주국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 학생 답안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면, (가)는 ㉠한 사회 내의 문화적 동질성 유지를 중시하며, ㉡사회 안정을 위해 비주류 문화의 주류 문화로의 편입과 통합을 강조한다. 반면 (나)는 ㉢각각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를 중시하며, ㉣한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할 것을 강조한다. 한편, (가), (나)는 모두 ㉤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공리의 원리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행위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을: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그것의 소유와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실천에 내재된 선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의 관행에 내재되어 있는 선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문제 상황>

A는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 대한 방송을 보게 되었다. A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새로운 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모아두었던 용돈을 기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갑: 사회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전통에 따라 결정하세요.
- ② 갑: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함을 인식하여 행동하세요.
- ③ 을: 더 많은 사회적 유용성의 산출 여부를 고려해 선택하세요.
- ④ 을: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품성에 따라서 행동하세요.
- ⑤ 갑, 을: 자연적 경향성으로부터 벗어나 이성적으로 판단하세요.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